

광양시, 아이 낳기 좋은 도시 만든다

광양시 저출산 극복 첫 단추 임신·출산 부담 안되는 환경 난임 진단검사·시술비 지원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제공”

광양시의 다양한 저출산 대책이 눈길을 끌고 있다.

광양시는 10개월의 임신 기간 동안 육체·정신적으로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에서 임신부를 지원하고 있다.

임신이 확인돼 보건소에 임신부 등록을 하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무료 산전검사로 풍진검사 외 26종에 대한 검사, 기형아·초음파검사 쿠폰 2회를 이용해 관내 산부인과(미래여성의원, 류여성의원)에서 초음파 등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엽산제(3개월)와 철분제(5개월)를 지원받는다. 이는 태아 신경관 결손으로 인한 유산·사산, 선천성 기형아 출산과 철분결핍성 빈혈 등을 예방해 태아와 산모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방책이다.

임산부와 가족을 대상으로 매월 둘째 주 금요일 주간, 넷째 주 금요일 야간에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교육도 진행한다. 특히 야간은 임신부뿐만 아니라 가족이 참여하는 교육이다. 임신과 출산에 대

한 이해도를 높여 산모의 건강 수준을 향상하고 양육역량을 강화할 수 있어 임신부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다

임신을 위해서는 난임의 원인을 조기에 발견해 적합한 시술로 임신 성공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광양시는 정부 정책과 발맞춰 임신부의 난임 문제해결을 위해 힘쓰고 있다.

광양시는 난임진단검사비 지원 대상자의 소득기준을 올해 7월 폐지해 모든 대상자에게 20만원 한도로 검사비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난임 진단검사를 조기에 부담 없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산가정(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아)에 영유아 건강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방문해 기본방문 또는 지속방문으로 방문 유형을 분류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상담과 양육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건강관리사를 출산가정에 파견해 태아 유형과 출산 순위에 따라 최소 5일에서 최대 40일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한다. 표준 서비스 기준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하는 이 사업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고 있다.

미숙아도 지원한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 지원 사업은 선천성 대사이상을 조기에 발견 치료하고 특수식이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는 환아가



광양시가 저출산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임신부 건강관리 교실.

광양시 제공

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미숙아 등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도움을 주며 정신지체 등 장애 발생의 사전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다.

취약계층 임신부와 영유아의 영양문제(빈혈, 성장부진, 영양불량) 해소를 위한 사업도 펼친다.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가정의 66개월 미만 영유아, 임신부, 출산수유부 중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를 대상으로 가구별 맞춤형 서비스(영양교육 월 1회와 월 2회 보충식품)를 제공하

며 사업대상 시민들의 만족도(98.7%)가 매우 높다.

또 광양시 보건소는 농업지원과와 연계해 난임부부와 임신부에게 친환경 농산물꾸러미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영양 섭취를 돕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이향 출생보건과장은 “임신, 출산, 양육 과정 전반에서 임신부를 보호하고 출산가정을 지원해 아이 낳고 양육하기 좋은 광양시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광양=안영준 기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워크숍 개최 고흥군, 사업 중간 점검·컨설팅 등

고흥군은 지난 15일 고흥청춘누리에 서마골공동체·행복드림돌봄공동체 관계자 30여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고흥군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와 함께 워크숍을 개최했다.

마을공동체 활동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마을의 문제점을 함께 해결해 가면서 상호의존성의 연대와 소통의 관계망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주민 주도형 활동이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각 공동체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 등을 듣고 사업 중간 점검과 다양한 건의·에로사항 등에 대한 컨설팅을 시행했다.

워크숍에 참여한 한 공동체 대표는 “그동안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 집행 등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많은 것들이 해결돼 앞으로 남은 기간에 사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겠다”며 감사함을 전했다.

송민섭 기자

순천시, 청년 스마트농업 과정 운영 현장 교육·실습 구성... 큰 호응

순천시가 지난 5월부터 운영 중인 2024년 순천시 농업인대학·청년 스마트농업 과정이 지역 청년 농업인들의 뜨거운 열기 속에 순항 중이라고 밝혔다.

농업인 대학은 순천형 디지털 농업 확산을 목표로 5월9일부터 11월7일까지 6개월간 21회 총 86시간 진행되는 과정이다.

교육은 스마트팜 시설·설비 구축, 작물 생리 등 이론뿐만 아니라 적절한 시기의 현장 교육 및 실습으로 구성된 교육생들의 집중도와 참여도를 높이고 있다. 7월 현재 총 8회차 교육이 진행됐으며 85% 이상의 출석률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11일에는 농업인의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 교육과정인 ‘임대농기계 안전교육 및 조작 실습’을 주제로 현장에서 직접 보고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해 교육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농업인 대학에 참여한 한 교육생은 “스마트팜에 대한 기술적 배경지식이 부족하고, 높은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 이번 교육을 신청하게 되었는데 강의 들고 목표와 방향 설정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깨끗하고 친절한 보성 만들기 보성군 보성읍

보성군 보성읍(읍장 김기성)은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깨끗하고 친절한 보성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깨끗하고 친절한 보성 만들기’ 활동은 여름 휴가철에 관광객들의 방문이 잦은 곳을 대상으로 보성읍 기관, 단체가 솔선수범해 도로변 풀베기, 시가지 쓰레기 수거 등을 추진하며 깨끗하고 청결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특히 깨끗하고 친절한 보성 만들기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읍장을 반장으로 추진대책반을 구성해 주 2회 이상 현장 활동을 적극 전개한다.

또한 보성을 찾는 방문객들을 친절하게 맞이하기 위해 상가, 음식점소종사자 친절 교육, 청결 유지 점검, 바가지 요금 근절 교육 등으로 다시 찾는 보성 이미지 제고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송민섭 기자

휴가철 관광지 쓰레기 집중 수거 고흥군, 기동수거반 운영

고흥군이 주요 해수욕장을 비롯한 휴가철 주요 관광지 생활쓰레기 집중 수거에 나섰다.

군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난 11일부터 8월20일까지 쓰레기 중점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2개 반 6명의 기동수거반을 운영한다.

기동수거반은 주말 및 휴일을 포함해 매일 우리군의 해수욕장을 비롯한 주요 관광지, 낚시터 등에 생활폐기물이 쌓이지 않도록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하절기 쓰레기 불법 배출 근절을 통해 쾌적하고 건강한 관광지 환경조성에 나선다. 취약지역 불법 소각행위 순찰을 강화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종량제봉투 미사용 배출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송민섭 기자



어르신 건강한 여름나기 행사 장흥군 회진면

장흥군 회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장찬석, 황호연)가 15일 초복을 맞아 복달임 행사를 추진했다.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지원하기 위한 이번 행사는 회진면 새마을부녀회(회장 고미자)와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함께 참여했다.

새마을부녀회와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은 경로당에 보양식과 수박을 직접 전달하며 지역 어르신들과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경로당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폭염 대비 행동요령을 안내하는 등 여름철 건강수칙을 전달했다.

장흥=김전환 기자



순천문화재단이 지난 11일 순천부 읍성 남문터광장 다목적 강의실에서 순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4 순천을 Green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순천문화재단 제공

'2024 순천을 Green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시상식

순천문화재단은 지난 11일 순천부 읍성 남문터광장 다목적 강의실에서 순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4 순천을 Green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지난 6월22일에 '내가 꿈꾸는 순천의 모습을 그려보아요'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창의적인 작품들을 심사한 결과 총 10점의 작품이 선정됐다.

각 수상자는 △대상(국서아) △최우수상(최서울) △우수상(김승권, 문세령, 손민준) △장려상(김지은, 김현서, 서동휘) △입상(김도현, 이나경) 등이다.

대상을 수상한 '우주인도 반한 시골벽 쪽 순천'은 각 캐릭터들의 행복한 모습이 그림 속에 잘 표현되어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다. 시상식에는 대상부터 입상까지 수상자들이 참석해 (재)순천문화재

단 명의의 상장과 시상금을 받았으며, 기획전시실에 전시된 수상작을 함께 관람하고 기념촬영을 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순천을 Green 어린이 그림전'은 오는 25일까지 순천부 읍성 남문터광장 기획전시실에서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순천문화재단 누리집(www.cfsc.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은 순천문화재단 자원운영팀(061-746-2916)으로 연락하면 된다.

순천=배서준 기자

보성군 보건소,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 관리 사업 추진

65세 이상 어르신 220명 대상

보성군 보건소는 지난 15일부터 허약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 습관 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 220명을 대상으로 'AI-IoT(에이아이-아이오티) 기반 어르신 건강 관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AI-IoT(인공지능-사물인터넷)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폰 앱(오늘건강)과 블루투스 기반 스마트기기(손목

활동량계, 체중계, 혈압계, 혈당계)를 활용하여 보건소 전문인력이 비대면으로 맞춤형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보성군은 방문 건강 관리 사업 대상자와 식생활, 신체 활동, 투약 관리 등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어르신을 사업 참여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7월15일부터 실시하는 사전 건강 스크리닝(사전 검사 및 검진 절차)을 통해 참여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확정된 대상자는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스마트기기(손목 활동량계, 체중계, 혈압계, 혈당계)를 선택 지원받게 되고, 각 기기를 통해 걷기, 혈압측정, 혈당 측정 등의 개인 미션(임무)을 6개월간 수행한다. 스마트기기를 통해 측정된 결과는 대상자 스스로 확인할 수 있으며, 보건소 시스템에 전송돼 사업 전문인력은 대상자의 미션(임무) 수행 결과와 건강 측정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건강상담 및 교육을 제공한다.

송민섭 기자